

농촌지역의 가족/친족의례 실태 분석*

An Analysis of the Family/Kin Rites in Rural Area

계명대학교
교 수 박 혜 인
(주)한국리서치
차 장 신 기 영

Keimyung University
Professor : Park, Hye-In
Hankook Reseach Co., Ltd.
Associate Director : Shin, Ki Young

〈목 차〉

- | | |
|----------------------|---------------|
| I. 문제의 제기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 II. 농촌지역의 가족/친족 의례연구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general tendency of family/kin ritual transition and to find out related variables. For this purpose, 593 subjects of rural family were interviewed with questionnaires. The major results of the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It was discovere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ritual transition among the rural families is same as the urban families, i.e. westernization, commercialization, and socialization. But the speed of rural area was relatively slow.

2. In contemporary family/kin rites, traditional structure coexisted with external westernized aspects by the group who were elderly, lowly educated, lowly earned and Buddhist.

3. The family/kin rites were more significantly different depending on the age than gender, and the religion was the significant variable to the family/kin rites. So the

* 이 연구는 1998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인문·사회과학 분야 중점영역 연구비를 지원받아 이루어진 연구의 일부임.

family/kin ritual management education programs were needed.

◆ key word: 농촌가족, 농촌친족, 가족의례, 친족의례

I. 문제의 제기

이 연구는 한국 농촌지역의 가족/친족의례의 실태를 전국적인 규모의 현장조사에 근거하여 분석한 후 이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해 보고자 하는 경험적 연구이다. 의례가 인간의 생활방식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주요한 항목 중의 하나이므로 가족/친족의례행동의 변화상을 고찰하여 농촌지역의 현실과 그 특징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일찍이 우리나라는 관혼상제의 가족/친족의례를 사회질서의 기본틀로 삼아 왔다. 특히 조선시대는 유교적인 가례의 교화, 즉 예교화(禮敎化)를 통하여 지배질서를 가지런히 해 왔으며, 그 문화적인 전통이 오늘날까지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서구화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차례와 그밖의 여러 가지 가정의례는, 가족생활은 물론 사회생활의 큰 마디로서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가족/친족의례를 통하여 우리사회의 변화를 고찰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농촌지역은 생산양식의 변화에서 비롯된 산업화, 도시화에 의하여 도시 가족과 마찬가지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농촌 사회는 도시로의 인구이동에 따른 인구의 감소와 이로 인한 지역 사회의 해체 등, 외부의 힘에 의한 강제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더구나 농촌가족은 도시가족에 비하여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 자녀세대의 농업계승의 단절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의 와중에 있는 농촌지역에 대한 연구는, 학계의 지속적인 관심 영역이었으나 실제로 농촌가족/친족 전반에 대한 연구는 별로 진전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최근 가족학분야에서 가족 및 친족관련 가치관과 가족관계 변화에 대한 인식, 이혼과 재혼에 대한 태도, 사회적 관계망의 특성, 그리고 이 연구의 주제인 가족/친족의례까지 크게 다섯 영역으로 나누어 농촌 가족/친족의 변화실태를 조사하였으며, 그 연구결과는 총괄적으로 보고한 바 있다.¹⁾ 이와같이 농촌가족/친족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맥락에서 본고는 의례실태를 조사분석한 것이며, 이를 통하여 오늘날 농촌 사회의 변화된 측면을 밝혀 보고자 한다.

앞의 총괄보고에서는 하나의 논고라는 지면 제한 때문에 개별 영역에 대한 실태자료 보고와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가족/친족생활 영역에 따라 사회인구학적 변인별로 다양한 편차가 있다는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이러한 차이를 학문적으로 검증하여 서로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는 본격적인 논의가 부족하였다. 뿐만 아니라 가족학분야의 경우 개별연구로는 대표성을 갖는 표집을 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적인 규모로 조사한 본고는, 우리 사회 변화의 비교 준거로 사용될 수 있는 의례실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의의가 있을 것이다. 총괄보고에서는 연구 결과 제시에 그쳤을뿐 이에 대한 변인별 분석과 논의에 한계가 있었으므로, 본고를 통해 미진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도 주요한 목적임을 밝혀 둔다.

그리하여 이 연구에서는 농촌지역 가족/친족의례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의례변화의 성격을 고찰할 것이다. 그리고 농촌 가정의례의 분석 결과를 가족/친족생활의 다른 영역과 관련시켜 논의하므로써 의례가 가족생활에서 차지하는 함의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도시와 농촌 두 지역의 가족/친족의례

1) 옥선화·김주희·박혜인·신화용·한경혜·고선주(2000). 가족/친족 구조의 해체와 재구성 II : 농촌지역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38(10), 157-179.

에 대한 일련의 연구 중 한 부분이므로, 의례항목별 도시·농촌지역간의 정교한 비교분석은 지면관계상 별도의 고찰로 남겨두고자 한다.

II. 농촌지역의 가족/친족 의례연구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전된 1970년대와 80년대의 농촌지역 의례연구는, 주로 특정 의례분야를 중심으로 한 집중적인 현장조사 보고가 주류를 이루었다. 의례에 나타나는 의미의 상징적 표현과정을 가정의례를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정승모, 1979:65)와, 인류학분야에서 조상숭배의례의 생태적 기능을 중심으로 농어촌의 한 지역을 대상으로 고찰한 연구(전경수, 1977:35)가 있었다. 또한 석대권(1986)은 각성촌락의 기제사를 중심으로 규범과 관행을 비교하였으며, 김택규(1988)와 최길성(1988)은 가족/친족의례의 중심축을 이루는 세시의례와 조상숭배의례를 각각 회고하고 전망하는 연구를 보고한 바 있다. 이어서 조강희(1989)는 상주지역의 한 문중의 사례를 중심으로 불천위제사와 묘사 등을 고찰하였으며, 임재해(1989)는 세시의례의 지속성과 변화를 안동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한 바 있다.

그리고 민속연구의 한 접근으로서 근대화와 전통의식의 변화 차원에서 안동이라는 특정지역 중심으로 제사의 현황에 대하여 고찰하였다(박영길, 1995:38-40). 특히 기제사 실시 현황과 가문전승에 대한 의식을 중심으로 고찰한 바 있다. 그리고 성병희(1995) 또한 한국과 일본의 조상숭배 의례를 비교하였다. 임재해(1990)는 동성마을의 민속과 전통의 변화를 다각도로 고찰하면서 이의 한 항목으로 세시풍속의 변화를 다루었다. 특히 그는 자연환경은 물론 생업의 기반과 함께 문화를 고찰해야 할 것을 제기하였다(임재해, 1990:65).

또한 임재해(1993)는 세시의례의 변화와 현대 사회의 공휴일 정책의 문제를 취급하여 시대 변화에 부응한 연구 주제의 전환을 보여주었다. 장철수(1993) 역시 평생의례와 정책과의 관계를 주제로 하여 고려시대 이후의 의례정책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서 '가정의례준칙'은 의례절차를 통해 형성된 인

간 및 사회관계를 해체시켰으며, 산업사회적 생활관에 의해 전통적인 생활정서의 근거마저도 상실하게 하였다고 분석하였고, 의례 상에 나타나는 계층의 위화감 역시 의례정책을 통한 노력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장철수, 1993:61). 같은 맥락에서 이남식(1990)은 씨족마을의 가족과 친족연구의 일환으로 제사를 접근하였으므로 특히 시사(時祀)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둔 바 있다. 지역연구의 형태로 접근한 양좌동 연구(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편, 1990:385)에서도 의례는 출산의례와 관례, 혼상제례를 통한 협동과 세시풍속의 항목으로 고찰되었다.

한편 이향란(1993)은 한국의 조상숭배와 유교제사에 대하여 문헌자료 위주로 분석하였고, 안병렬(1994)은 유교적 토양에 기독교의 수용이 제사와 어떻게 연관되는가의 문제를 고찰하였다. 특히 후자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 측면에서 종교집단의 인식 전환을 논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는 앞으로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와 달리 각 기관이 주도하여 변화하는 농촌지역의 전통문화 변화를 포착하기 위한 일련의 기획연구로서, 조사활동 보고서가 하나의 흐름을 이루는 현상이 나타났다. 영남대박물관(1991)은 인류학적 조사로서 가정의례의 세시풍속을 조사 보고한 바 있다. 이밖에도 경기도 화성지역의 역사, 민속보고서에는 개인의례와 마을의례, 그리고 세시풍속이 포함되었으며(경기도화성군·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1989), 금산문화원(1992)에서 발간한 용화리의 역사와 민속, 특히 충남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지역의 사례연구에서는 상장례부조와 문중제사를 보고하고 있다. 장흥군 방촌마을지편찬위원회(1994)가 편찬한 전통문화마을 방촌에 대한 보고서에도 변화하는 과도기의 세시의례와 가족/친족의례가 기술 보고되어 있다.

한편 농촌과 달리 산촌지역을 대상으로한 의례연구 보고 또한 주목된다. 치악산(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 편, 1995)과 노적산(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95) 지역의 세시의례와 관혼상제 가족/친족의례가 보고되어 학술연구에 기초자료로서 의의가 평가된다. 그런데 점차 가정의례가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용인지역의 마을의례

에 대한 연구에서는 세시의례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용인서·용인문화원, 2000). 이것은 현대사회가 세시의례에 대한 관심을 적게 갖게된 것에서 기인하지 않는가 생각된다.

또한 근교농촌의 해체과정에 대한 연구(문옥표·김일철·김태현·이문용·정명채, 1993)에서도, 산업구조의 변화와 인구·직업구조의 변화와 가족 및 의식주생활의 변화와 여성의 역할에 대한 연구, 그리고 생활양식의 변화까지 다루면서도 가정의례에 대하여는 전혀 취급하지 않았다. 다만 유일하게 꼽을 수 있는 연구는 충청남도 대호지면 도리리에 대한 집중조사 보고(김일철·김필동·문옥표·송정기·한도현·한상복·柿崎京一, 1998)이다. 여기에서는 종족마을의 전통과 변화를 분석하면서 혼상제례를 중심으로 한 가정의례의 변화(문옥표, 1998:206)를 별도의 장으로 다루어 주목되는 바이며, 또한 조상 숭배와 신앙생활도 별도로 고찰하여(송정기, 1998:233) 최근 변화의 일단을 밝혀주고 있다. 김혜숙(1999) 역시 일련의 제주도가족 연구 과정에서 제주도 지역의 혼인의례를 집중적으로 고찰하였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최근의 연구에서 이제까지 당연시해 온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이 보다 심화되는 측면도 나타나고 있다. Janelli, R.와 임돈희는 조상 숭배가 한국사회에서 갖는 의미에 대한 공동연구를 영어(1982) 한국어(2000)로 발간하였다. 그리고 예서에 나타난 유교식 관혼상제례의 의미를 분석한 문옥표(1998:181) 연구 역시 전통에 대한 새로운 조명의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시풍속을 중심으로 박부진(2000)은 전통적 생활문화의 전승과 변화를 논하였는데 이러한 경향은 21세기가 문화의 세기로 연결되는 흐름과 관련되지 않나 생각된다.

이와같이 검토해 볼 때 농촌지역에 대한 가족/친족의례 연구는 민속 또는 전통문화 요소로서 어느 특정한 가정의례, 흔히 제사의례를 택하여 그 변화와 지속을 고찰하는 것이 지배적인 경향이었다. 그것도 전통문화가 많이 지속되는 특정한 지역의 씨족마을 위주로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농촌지역에 대한 가족/친족의례 전반을 조사한 경험적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었

고, 따라서 선행연구와의 비교 논의 역시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오늘날 가족/친족원이 일생동안 지위를 변화시키며 치루는 출생의례부터 사후의 제례까지를 포함하는 통과의례를 고찰하는 이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지역의 가족/친족의례 관행 실태와 의례에 대한 태도의 전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2) 농촌지역의 가족/친족의례 관행 실태와 의례에 대한 태도는 성,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종교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조사대상자의 선정은 1995년 통계청에서 발간한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의 각 도별 읍면 이하 지역의 인구비에 따라서 이루어졌다. 조사는 10대부터 60대까지 남녀 각각 1명씩 12명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도별로 조사단위를 배정하였다. 경기도의 경우 총 인구 중에서 읍면 이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12%였으며 강원도가 4%, 충북이 3%, 충남이 8%, 전북이 4%, 그리고 전남이 7%, 경북이 8%, 그리고 경남이 8%를 차지하였다.

조사설문지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옥선화·김주희·박혜인·신화용·한경혜·고선주, 1998)를 토대로 하여 농촌지역 설문지를 축약하여 재구성하였으며, 1999년 4월에 6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부분항을 수정한 후에 1999년 6월 22일부터 7월 12일까지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는 33명의 대학생 조사원이 배포조사와 면접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인구비율에 따라 경기도 120명, 강원도 48명, 충북 36명, 충남 84명, 전북 48명, 전남 84명, 경북 96명, 경남 96명으로 612명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인 10대

부터 60대까지 51단위 612명 중에서 593명이 최종 분석대상이 되었다.

3.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조사 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교육수준은 고졸이 가장 많은 편이며, 무학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급간	빈도 (%)	특성	급간	빈도(%)		
연령	10대	79(13.7)	종교	기독교	158(26.8)		
	20대	105(18.2)				천주교	37(6.3)
	30대	98(17.0)				불교	199(33.7)
	40대	100(17.4)				종교 없음	188(31.9)
	50대	96(16.7)				기타	8(1.4)
	60대	98(10.0)					
	계	576		계	590		
성별	남성	290(49.4)	가족유형	핵가족	331(55.8)		
	여성	297(50.6)				부계확대가족	158(26.6)
	계	587				모계확대가족	4(0.7)
		노부부				59(9.9)	
		단독가구				22(3.7)	
		기타				19(3.2)	
	계	503		계	593		
교육수준 (10대 제외)	무학	21(4.1)	직업형태	농업	200(34.4)		
	초졸 이하	135(26.8)				주부	85(14.6)
	중졸	83(16.5)				은퇴·무직	24(4.1)
	고졸	161(32.0)				전문·경영	13(2.2)
	전문대이상	103(20.5)				사무직	47(8.0)
						생산·기능·서비스	30(5.1)
		자영업	48(8.2)				
		학생	128(22.0)				
		기타	6(1.0)				
	계(평균)	585(157)		계	581		
소득수준	100만원미만	139(23.8)	주거형태	아파트	40(6.8)		
	150만원미만	162(27.7)				단독주택	467(78.8)
	200만원미만	105(17.9)				상가주택·다가구주택	33(5.6)
	250만원미만	96(16.4)				임대	11(1.9)
	300만원 이상	83(14.0)				연립, 빌라	29(4.9)
						기타	13(2.2)
	계	593		계	593		

을 포함한 초졸 이하가 다음으로 많아서 교육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다. 응답자 가족의 소득수준은 평균 157만원으로 높지 않은 편이었다. 종교적 경향은 불교와 종교가 없는 경우가 비슷했으며 그 다음이 기독교이다. 직업은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주부라고 응답한 경우까지 포함한다면 실질적으로 농업종사자가 거의 과반수에 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²⁾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가족/ 친족생활 의례 관행의 전반적인 경향

생일의례, 성인식 관련 항목과 의례에 대한 태도는 미혼자의 응답까지 포함하여 분석하였고, 출산의례와 관혼상제례는 의례를 경험한 기혼자를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1) 출산의례

출산 의례 중 가장 보편적으로 행해지는 것은 산모의 미역국 섭취라고 할 수 있어 전통사회에서나 현대사회에서나 많이 행해지는 출산의례임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백일잔치와 돌잡이가 많이 행해져서 각각 전체 응답자의 69.5%와 64.8%가 이를 실시한다고 응답하였다. 백일기도나 외갓집 나들이에 붉은 고추를 넣어 가는 일, 삼신에게 빌기 등의 민간 신앙적 행위도 농촌에서는 다수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표 2>.

2) 생일 의례

미역국 섭취 다음으로 생일의례에서 보편적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는 관행은 케익준비와 선물이었다. 도시와 마찬가지로 농촌에서도 케익으로 생일떡을 대신하는 경향이었다. 생일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도 전체의 50%에 가까웠다<표 2>.

3) 성인기 의례

성인기 의례에 대해서는 '어른'이 되는 시점을 어느 사건을 기준으로 인식하고 있는냐고 질문하여 우회적으로 조사하였다. 남자의 경우 '군대 제대'를, 여자의 경우는 '결혼'을 성인이 되는 시점으로 보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남자에게 있어서는 군 복무가, 여자에게 있어서는 결혼이 성인으로 성숙하게 되는 계기이자 성인이 되는 통과의례로 여기는 경향이었다. 그 다음으로 성인이 되는 시점으로 응답한 내용은 남자의 경우 결혼, 여자의 경우 만 20세로 나타났다. 남성이나 여성이나 결혼이 1, 2위로 나타난 것을 볼 때 농촌가족의 경우 어른이 되는 시기를 대체로 결혼이라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자의 경우 출산 같은 가족 생활 관련 사건이 성인기 진입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여기는 사람의 비율이 남자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인다<표 3>.

4) 혼례

혼례를 올린 장소는 신부집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도시에 있는 예식장, 읍·면에 있는 예식장이나 회관, 종교기관 순이었다<표 3>. 본래 우리나라는 혼례가 여가에서 이루어지는 전통이었으므로, 농촌의 고연령층의 경우는 젊은층과 달리 예식장 등의

<표 2> 출산 및 생일의례

의례의 종류	실시 정도: 빈도(%)
출산의례	미역국 368(91.3), 백일잔치 280(69.5), 돌잡이 261(64.8), 삼칠일 금기 110(27.3), 삼신에게 빌기 68(16.9), 외갓집 첫 나들이에 붉은 고추 넣어가기 51(12.7), 백일 기도 24(6.0)
생일의례	미역국 543(91.6), 케익 313(52.8), 선물 276(46.5), 생일떡 172(29.0)

2) 결측값을 제외한 관계로 각 항목마다 응답자수에 차이가 있다.

〈표 3〉 성인기 의례와 혼인의례

의례의 종류	구분	실시 정도: 빈도(%)
성인기 의례 (어른이 되는 시점)	남자	군대제대 226(38.1), 결혼 106(17.9), 만20세 91(15.3), 고졸 73(12.3), 대졸42(7.1), 취직 26(4.4), 자녀출산 16(2.7)
	여자	결혼 189(31.9), 만20세 117(19.7), 대졸 83(14.0), 자녀출산 80(13.5), 고졸 77(13.0), 취직 29(4.9)
혼인 의례	혼례장소	집 136(33.7), 도시의 예식장 106(26.3), 읍·면의 예식장 98(24.3), 읍·면의 회관이나 종교기관 54(13.4)
	혼례절차의 종류	폐백 340(84.4), 피로연 274(68.0), 청첩장 244(60.5), 합잡이 200(49.6), 신혼여행 176(43.7), 약혼식 110(27.3), 답례품 100(24.8), 야외촬영 49(12.2)

의례공간의 사회화 영향을 덜받았다고 하겠다.

결혼식에서 행한 의례를 묻은 결과 청첩장, 합잡이, 폐백, 피로연, 신혼여행 등을 많이 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백의 경우 80%가 넘는 응답자가 행하였다. 도시가족과 달리 농촌가족의 경우는 전통적인 폐백의례 이외의 상업주의화된 혼인 풍습은 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외촬영을 하지 않았는데 이는 야외촬영이 많이 나타나는 도시가족과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5) 상주의 복장

상주의 복장에 대해서는 각각의 항목을 제시하고 경험한 항목에 모두 표시하도록 하였다. 남성의 상복으로 가장 보편적인 것은 삼베 상복과 굴건, 삼베 완장, 지팡이로 나타났다(표 4). 도시가족의 경우 서구적 상복인 검은색 양복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이와 대조적으로 농촌에서는 전통적 형태의 상복이 아직까지도 보편적임을 알 수 있다. 여성들의 경우 가장 보편적인 상복은 흰색 소복과 흰색 머리 리본이었다. 지팡이를 사용한 경우도 30% 정도 나타났다. 검은색 양장과 같은 서구식 상복의 착용도가 5.2% 정도에 지나지 않아 전통적인 상복 형태를 많이 취함을 알 수 있다.

6) 제사의례

제사형식을 조사한 결과 전통 유교식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간소한 유교식이 많았

다(표 4). 유교식으로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가장 보편적임을 알 수 있다. 기독교식 추도식도 13.7% 정도를 차지하여 농촌에서도 서구 종교인 기독교가 제사에 영향을 준 것을 알 수 있다. 제사를 안지내는 경우는 5.6% 정도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농촌 가족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집안에서 지내는 제사의 종류를 물어 본 결과 차례와 기제사는 응답자의 80% 정도가 실시하고, 묘사는 과반수 정도가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사 중에서 기제사와 차례는 여전히 농촌에서 보편적인 가족/친족의례로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문중이 주체가 되는 묘사도 50%를 육박하여 아직까지도 농촌에서 중요하게 실시되고 있는 제사형식으로 인식된다고 보여진다.

기제사 시행 시 봉사 범위는 전통적인 4대 봉사를 하는 경우와 3대 봉사를 하는 경우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합하여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부모까지만 하는 경우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농촌이 도시(23.2%)보다 전통적인 가치관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도시보다 4대 봉사를 행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기제사 참가자의 범위를 보면 4촌 이내의 친족들이 참가하는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동거가족만 제사를 지내는 경우는 아주 적었다(4.7%). 여전히 제사가 친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참가자의 범위가 전

통적 친족 개념인 8촌까지 포괄하는 경우 또한 매우 적어 시대 변화를 반영해 주었다. 농촌가족의 경우 제사 복장은 남성이나 여성 모두 양복이나 평상복을 단정하게 입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통적인 유교식 제사는 많이 지내고 있지만 의상은 현대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기의 마련 방법에서는, 평상시에 사용하는 그릇을 사용하는 비율은 적은 편이고(15.6%), 대부분 제사용 제기를 따로 구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려 받은 제기를 사용하거나 따로 마련해 두고 사용하는 경우를 합쳐 모두 68.5% 정도가 제사용 제기를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이를 볼 때 농촌가족에서 제사의례가 지니는 신성성의 비중은 여전히 적지 않다고 하겠다.

7) 문중행사 참여정도

사람들이 문중행사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조사한 결과 종친회·묘사·집안제 모임에 대한 참석이 가장 활발하였고, 족보발간에도 24.1% 정도의 응답자가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표 4〉). 반면 17.9% 정도의 응답자들은 문중행사에 전혀 참가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도시지역 문중의 정치적 기능이 농촌지역에도 적용되겠으나, 농촌의 경우 친족간 유대의 긴밀함 정도가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겠다.

2. 전반적인 가족/친족의례에 대한 태도

1) 중요시하는 의례

중요시하는 의례를 1순위에서 3순위까지 조사한

〈표 4〉 상례와 제례

의례의 종류	구분	실시 정도: 빈도(%)	
상례	남자 상주 복장	삼베상복 305(75.7), 지팡이 259(64.3), 굴건 195(48.4), 삼베 완장 174(43.2) 행진 163(40.4), 삼베리본 130(32.3), 검은 양복 87(21.6), 요질(새끼줄) 71 (17.6), 평상복 24(6.0), 검은 한복 8(2.0)	
	여자 상주 복장	흰색 소복 371(92.1), 흰색 머리 리본 217(53.8), 지팡이 121(30.0), 요질(새끼 줄) 76(18.9), 검은 양장 21(5.2), 평상복 12(3.0), 검은 한복 6(1.5)	
제례	실시형식	전통 유교식 251(42.3), 간소한 유교식 223(37.6), 기독교식 추도식 81(13.7), 안지냄 33(5.6)	
	제사종류	기제사 478(80.6), 차례 469(79.1), 묘사 285(48.1)	
	봉사범위	3대 105(26.1), 4대 103(25.6), 2대 76(18.9), 부모 47(11.7)	
	참가자범위	4촌 이내 119(29.5), 형제자매 80(19.9), 6촌 이내 54(13.4), 가능한 모두 42 (10.4), 8촌 이내 30(7.4), 동거가족 19(4.7)	
	기제사복장	남성	깨끗한 평상복 175(43.4), 정장 101(25.1), 한복 45(11.2), 천담복(제사옷, 옥 색한복) 20(5.0)
		여성	깨끗한 평상복 276(68.5), 한복 30(7.4), 천담복13(3.2), 정장 11(2.7)
	제기마련	따로 마련해 두고 사용 187(46.4), 물려받은 제기 사용 89(22.1), 평상시 사 용하는 그릇 63(15.6)	
문중행사참여		집안 계모임 215(53.3), 묘사 189(46.9), 종친회 184(45.7), 족보 발간 97(24.1), 참가하지 않음 72(17.9)	

결과 1순위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결혼식이었다 (56.0%). 장례식의 경우는 2순위 혹은 3순위로 중요한 의례라고 지적되었다. 그 외에 돌잔치, 환갑 잔치와 기제사 등이 중요한 의례로 지적되었다<표 5>. 농촌가족의 경우도 도시가족과 마찬가지로 인륜지대사라 할 수 있는 결혼식을 가장 중요한 의례로 지각하고 있었다. 관혼상제의 통과의례와 관련된 결혼식, 장례식, 기제사 등이 중요하고 탄생과 장수의 축하를 기리는 돌잔치와 환갑잔치 역시 중요한 의례로 인식되고 있었으므로 우리나라 농촌가족/친족에서 의례가 지니는 높은 비중을 반영해 주었다.

2) 희망 묘제

사후에 자신의 묘지에 대한 희망 형태에서 1순위에서는 가족 묘지(선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2순위에서는 공원 묘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농촌가족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가족 묘지에든 공원 묘지에든 매장되는 것을 선호하지만 화장해서 납골당에 안치되거나 산에 뿌리는 것에 대해서도 거부적이지 않고 호의적이어서 어느 정도 시대 변화에 따른 인식의 전환을 나타냈다.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제사를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과반수 가까운 사람들이(48.1%) 제사를 안 지내도록 하겠다고 응답해서, 전통적인 농촌 가족에서도 제사를 위해 아들을 입양해 오던 유교적 규범이 많이 약화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절, 성당에

서 지내도록 하거나, 외손봉사를 시키겠다는 응답이 많았고, 양자를 입양해서 제사를 지내도록 하겠다는 의견은 극소수였다.

3) 제사 제도 전망

제사 풍속이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에서는 제사제도가 차츰 없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35.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계속 장남이 맡을 것, 종교기관이 대행할 것이라는 의견 순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의 결과를 통해 볼 때 농촌가족의 경우 전통적 유교사상에 입각한 장남의 제사 의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지만, 이를 미래 제사의 보편적인 모습으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제사제도가 없어진대거나, 제사제도가 존속되어도 이를 종교기관이 대행하거나, 아들들 또는 아들과 딸들이 나누어서 지낼 것이라는 대안적인 형태에 대해서도 농촌가족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외의 결과는 아들들끼리 나누어 제사를 지낸다는 의견(10.8%)보다 아들, 딸들이 나누어 지낼 것이라는 의견(16.0%)이 더 많이 나왔다는 점이다<표 5>. 농촌가족에서도 아들과 딸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가정의례에 대한 태도

의례에 대한 태도	응답 분포: 빈도(%)	
중요시하는 의례	1순위	결혼식 332(56.0), 장례식 66(11.1), 돌잔치 40(6.7)
	2순위	장례식 152(25.6), 결혼식 129(21.8), 환갑잔치 112(18.9)
	3순위	장례식 148(25.0), 기제사 76(12.8), 환갑잔치 65(11.0)
희망 묘제	1순위	가족묘지 409(69.0), 화장 후 납골당 안치 54(9.1), 화장 후 산에 뿌리기 53(8.9)
	2순위	공원묘지 167(28.2), 화장 후 산에 뿌리기 120(20.2), 화장 후 납골당 안치 92(15.5)
아들이 없을 경우 희망 제사 방식	안 지냄 285(48.1), 절·성당에서 지냄 142(23.9), 외손봉사 123(20.7), 양자입양 22(3.7)	
제사 제도 전망	차츰 없어질 것임 212(35.8), 장남 제사 계속 115(19.4), 종교기관 대행 104(17.5), 아들·딸이 나누어 맡음 95(16.0), 아들끼리 나누어 맡음 64(10.8)	

3. 변인별 가족/친족의례 관행과 태도 고찰

이어서 각 의례가 사회인구학적 변인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할표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한³⁾ 결과 다음과 같다.

1) 성별 가족/친족의례 관행과 태도

이 연구에서 남녀별 가족/친족의례에 대한 행동과 태도를 분석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성별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 주목되었다. 일반적으로 가사노동을 통해 의례를 준비해야 하는 역할은 여성에게 편중된 것이 현실이므로 의례에 대한 성차가 예상되었으나, 결과는 전혀 달리 나타난 것이다. 다만 “**아들이 없는 경우 앞으로 어떤 제사방식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만 성별차이를 보였다($X^2=29.84^*$). 양자를 입양해서 지내겠다는 응답과 제사를 안 지내도록 하겠다는 양극단의 응답 모두 남성이 더 많았다. 외손 봉사나 절, 성당에서 지내도록 하겠다는 의견은 여성이 더 많았다.

이것은 도시지역에 비하여 남녀가 함께 생업에 종사하는 농촌지역의 특성 때문에 남녀의 생활 경험의 일치와 인식과 행동의 일치로 연결된 것이 아닌가 해석된다.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여전히 보수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남성은 양자를 고집하는 데 반해, 다른 한편의 남성은 대부분의 여성들의 인식보다 더 급진적이어서 제사대행을 뛰어 넘어 제사폐지까지 생각한다는 점에서, 농촌 남성 집단 내의 현저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오히려 농촌지역의 여성들은 도시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종교기관의 제사대행이라는 완만한 변화를 대안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2) 연령별 가족/친족의례 관행과 태도

(1) **출산 의례**에서 연령별로 차이를 나타낸 의례는 ‘삼신에게 빌기’($X^2=10.24^*$), ‘외갓집 첫나들이에 붉은 고추 넣어가기’($X^2=11.32^*$), 백일잔치($X^2=23.89^{***}$)

였다. ‘삼신에게 빌기’와 ‘외갓집 첫나들이에 붉은 고추 넣어가기’는 나이가 많은 집단에서 흔히 행하는 출산의례였고, 특히 50대 이상의 응답자들이 젊은 층보다 많이 하였다. 높은 연령층의 경우, 민간 신앙적 의례를 많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백일잔치는 30대, 40대에서 많이 하였다. 점차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서 젊은층이 오히려 많이 하는 의례임을 알 수 있다.

(2) 생일떡을 하는 **생일의례**는 30대 이후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였다($X^2=31.61^{***}$). 선물준비는 20대가 가장 많이 하였으며, 50대 이상은 적게 하였다($X^2=23.30^{***}$). 케익준비 역시 50대 이상 연령층은 그 아래 세대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하였다($X^2=14.65^*$). 선물이나 케익과 같은 서구적 생일의례는 젊은 세대에서 보다 많이 함을 알 수 있다.

(3) **남성의 성인기 시점**에 대한 생각에서 연령 차이가 나타났다($X^2=60.03^{**}$). 10대와 20대, 40대, 50대는 ‘군대 제대’를, 30대와 60대는 ‘군대 제대’와 ‘결혼’을, 남성이 어른이 되는 시기로 생각하였다. 모든 연령층에서 ‘군대 제대’를 남성이 어른이 되는 주요 전이 시점으로 보았다. 농촌지역에서는 성인기의 당사자인 20대 역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각하는 성인기 시점과 일치하여 도시에 비해 성인기 시점에 대한 대체적인 사회적 합의를 보여 주었다.

여성의 성인기 시기에 있어서도 연령 차이는 나타났다($X^2=70.92^{***}$). 여성이 어른이 되는 시기를 젊은 층에서는 ‘고졸연령’이나 ‘만 20세’로 보았고, 연령이 높은 경우는 ‘결혼’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 특히 6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결혼’을 여성이 어른이 되는 시기로 보는 빈도가 가장 높았다. 전반적으로 여성의 성인기 전이에 대하여 젊은 사람들은 생활연령을, 나이가 든 사람들은 결혼이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은 혼인을 해야 어른이 된다고 했던 전통적 관념이, 높은 연령층에서는 그대로 지속되고 있었다.

3) 이 보고서에서는 분량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분할표 분석을 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우만 변수별 차이 부분에서 언급하도록 한다. 각 결과의 간략한 서술을 위해 χ^2 의 값과 통계적 유의미성 정도만을 제시하도록 한다. 통계적 유의미성 정도는 * $p<.05$, ** $p<.01$, *** $p<.001$ 로 나타낸다.

(4) **혼례를 올린 장소**는 연령별로 차이를 보여, 20대와 30대 등 젊은 세대에서는 예식장이나 회관, 종교기관 등 공적인 예식장소에서 혼례를 올린 사람들이 많았다. 이에 비해 연령이 높은 세대 즉 50대와 60대 이상의 응답자들은 신부집에서 혼례를 올린 비율이 높았다. 이들 연령층이 결혼했던 시기는, 혼례라면 곧 신부집에서 올리는 전통혼례를 의미했기 때문에 대부분이 집에서 혼례를 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밖에 **수반되는 혼례 절차**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영역이 많았다. 약혼식($X^2=22.06^{***}$), 청첩장($X^2=112.12^{***}$), 함잡이($X^2=26.88^{***}$), 야외촬영($X^2=52.08^{***}$), 피로연($X^2=22.258^{***}$), 신혼여행($X^2=200.08^{***}$)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가 의미있게 나타났다. 약혼식은 40대와 50대에서 많이 하였고, 청첩장과 피로연은 30대와 40대가 많이 하였다. 함잡이는 50대 이상에서 많이 하였고, 야외촬영이나 신혼여행은 20-30대 젊은 세대에서 많이 하였다. 야외촬영이나 신혼여행 같은 서구적인 의례가 농촌지역까지 일반화된 것은 최근의 일이므로 젊은 세대가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상업주의화된 이들 절차가 농촌지역까지 포변화되는 데는 도시보다 긴 시간이 소요되었음을 보여 준다.

(5) **상례**에서 먼저 **남성 상주의 복장**을 살펴보면, 서양식의 상복인 검은색 양복을 30대와 40대에서 많이 착용하였다($X^2=11.90^*$). 굴건($X^2=26.99^{***}$), 요질($X^2=9.59^*$), 지팡이($X^2=12.88^*$), 행전($X^2=25.49^{***}$) 등 전통적인 상례복장은 나이가 많은 층에서 더 많이 착용하였다. **여성 상복의 경우**도 검은색 양장은 30대와 40대에서 많이 나타났고($X^2=13.19^*$), 흰색 머리 리본($X^2=9.96^*$), 지팡이($X^2=10.25^*$)와 같은 전통적인 상복 형태는 나이가 많은 집단이 많이 착용하였다. 도시보다 서서히 나타나는 변화이지만 서구적인 상복을 젊은 층에서 선호한다는 점에서 변화 방향은 같다고 하겠다.

(6) **제사의례**에서, 먼저 **제사 형식**을 보면 연령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제사의 시행 정도**에 있어서는 묘사와 차례는 연령차가 나타나지 않았고, 기제사의 경우에만 연령차가 나타났다($X^2=$

32.45*). 기제사는 특히 5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실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화에 따라 자녀들에 대한 제사상속이 늦어지는 연령층이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기제사의 봉사 대상 범위에 있어서도 연령대가 높은 50대, 60대들이 4대 봉사, 3대 봉사를 하는 정도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X^2=44.15^{**}$). 기제사 때 입는 복장에서는 남녀 모두 연령차가 나타났다(남성: $X^2=34.03^{**}$, 여성: $X^2=26.91^*$), 연령대가 50대 이상일 때 한복 정장을 입는 정도가 높았고, 연령대가 20대, 30대, 40대에서는 양복 정장이나 깨끗한 평상복을 입는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젊은층이 의례를 시대 변화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데 비해, 높은 연령층이 전통의례를 고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7) **문중행사 참여정도**를 보면, **중친회·묘사·족보 발간**에서 연령이 많은 집단이 참여 정도가 높았다. 특히 50대와 60대의 참여도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중친회: $X^2=20.11^{***}$, 묘사: $X^2=18.72^{***}$, 족보 발간: $X^2=18.37^{**}$). 앞으로 젊은 층이 나이가 들면, 과연 부모 세대와 같은 정도로 이 일을 주도해 나갈 것인지는 미지수이다.

(8) **의례전반에 대한 태도**를 보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례**에서 연령차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X^2=123.88^{***}$). 결혼식을 가장 중요하다고 여긴 사람의 비율은 2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환갑잔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서로 다른 연령층에 대한 배려보다 자신이 당면한 의례를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는 입장이어서 이기성의 측면이 우려되는 점이나, 이를 달리 보면 자신의 발달과제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태도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희망 묘제와 제사방식에서 연령차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대체로 가족묘지와 공원묘지를 차례로 선호하고, 납골당이나 화장에 대하여 소극적인 것이, 세대 차이 없이 나타난 전반적인 농촌 주민의 태도였다. 그러나 제사제도에 대한 미래 전망에서는 연령차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X^2=50.06^{**}$). 아들·딸 간에 제사를 나누어 맡을 것이라는 견해가 10대

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50대와 60대의 경우 제사를 계속 장남이 맡을 것이라는 견해가 보다 많았고, 제사를 종교 기관에서 대행할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소극적이었다. 그리고 제사제도가 없어질 것이라는 전망은 20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를 보면 앞으로 젊은 세대들이 의례의 주도권을 갖게 될 미래에는 얼마간의 변화가 예측된다. 그러나 정작 본인이 그러한 상황에 처하였을 때, 지금의 태도처럼 행동할 것인지의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본다.

3) 교육수준별 가족/친족의례 관행과 태도

(1) 교육수준별로 차이가 나는 출산의례는 삼신에게 빌기($X^2=22.92^{***}$), 산모의 미역국 섭취($X^2=15.83^{***}$), 백일잔치($X^2=11.20^*$)였다. 민간신앙적 요소가 강한 삼신에게 빌기는 교육수준이 낮은 초졸에서 많이 나타났고, 산모의 미역국 섭취와 백일잔치의 경우 고졸 이하 사람들이 전문대졸 이상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는 저학력 집단이 민간신앙을 지닌 데 비해, 미역국 섭취와 백일잔치는 고학력층까지 일반화된 의례이기 때문일 것이다.

교육수준별로 차이가 나는 생일의례는 미역국($X^2=31.01^{***}$), 선물($X^2=24.91^{***}$), 케익($X^2=46.26^{***}$)이었다. 미역국은 초졸과 고졸자에게 많이 나타났고, 선물과 케익은 고졸자에게서 많이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은 층일수록 서구식 생일의례를 많이 시행함을 알 수 있다.

(2) 성인기 의례 역시 교육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자의 성인기 시점에 있어서는 고졸자들이 '군대 제대'를, 초졸자들이 '결혼'을 성인기 시점으로 보는 비율이 다른 학력 소지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X^2=65.39^{**}$). 여자의 성인기 시점에 있어서는 초졸자들은 '결혼'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고, 고졸자들은 고졸 연령, 20세, 대졸, 결혼 등 보다 다양하게 보는 경향이 강했다($X^2=72.49^{***}$). 초졸 집단은 대체로 고연령층으로 구성되었으므로, 이들은 남녀 구분없이 '결혼'을 성인기로 보는 보수적인 태도를 나타낸 것이라 해석된다.

(3) 혼례 역시 교육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X^2=204.18^{***}$). 집에서 혼례를 올린 사람들 중에서는 초졸자가 가장 많았고, 고졸자들은 공적인 장소인 예식장이나 종교기관을 이용하는 경향이 강했다. 결혼식 의례에서 교육수준별로 차이가 나는 의례는 청첩장($X^2=108.38^{***}$), 합잡이($X^2=12.03^*$), 야외 촬영($X^2=46.39^{***}$), 피로연($X^2=28.63^{***}$), 신혼여행($X^2=161.62^{***}$)이었다. 합잡이는 초졸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행하였고, 합잡이를 제외한 나머지 4가지 의례에서는 고졸자들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와 같이 농촌지역의 경우 높은 연령층과 낮은 소득수준 집단, 그리고 낮은 교육수준 집단은 동질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4) 상례에서 남자 상주의 상복 착용을 보면, 교육수준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검은색 양복은 고졸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입는 것으로 나타났고($X^2=22.07^{***}$), 삼베 상복($X^2=16.51^{**}$), 굴건($X^2=31.66^{***}$), 요질($X^2=20.35^{**}$), 지팡이($X^2=20.94^{***}$), 행전($X^2=20.09^{**}$)은 초졸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항목과 함께 검토했을 때 소득수준이 낮고, 초졸자인 사람들이 전통적인 상복의 형태를 많이 취함을 알 수 있다. 여자 상주의 상복 착용에 있어서는 요질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X^2=25.05^{***}$). 초졸자가 다른 학력의 소지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요질을 많이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낮은 교육수준 집단의 보수적인 경향과 일치하고 있다.

(5) 제사의례에서 교육수준별로 제사형식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제사의 종류별 시행 정도에서도 묘사는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없었고, 차례($X^2=14.49^{***}$)와 기제사($X^2=28.18^{***}$)에서만 차이가 있었다. 둘 다 초졸자와 고졸자들이 다른 학력 소지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제사의 봉사 대상 범위, 참가자의 범위, 여성의 기제사 때 입는 옷, 제기 마련에서도 교육수준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제사의 형식에서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 부분은, 남성이 기제사 때 입는 의복이었다($X^2=46.05^{***}$). 초졸자들은 한복 정장과 양복 정장을 입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고졸자들은 양복 정장이나 평상복을

입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초졸집단이 전통을 고수하고 있고, 고졸집단이 서구적 양식을 수용하면서 의례 규범에 융통성 있게 적용하였다.

(6) **문중행사 참여정도**에서는 종친회($X^2=16.50^{**}$)와 족보 발간($X^2=11.87^*$) 부분에서만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초졸자들은 종친회와 족보 발간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은 데 비하여, 고졸자들은 종친회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았다. 종친회의 기능이 사회변화에 따라 다양해지면서 고학력자들도 참여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겠다.

(7) **중요시하는 의례**에서 교육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X^2=101.69^{***}$). 돌잔치, 결혼식을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는 고졸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대학 입학식·환갑 잔치를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는 초졸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연령층별 특징과 마찬가지로 젊은 연령층인 고학력자는 돌잔치, 결혼식 같은 의례를 중시하고 저학력자의 고연령층은 대학입학과 환갑잔치를 중요시하여 일종의 세대 차이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가족행사 시 이에 대한 의견의 절충과 조화가 필요할 것이다.

희망 묘제, 제사방식은 교육 수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제사제도에 대한 미래전망**에서는 교육 수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X^2=60.38^{***}$). 초졸자들은 계속 장남이 맡을 것이라든가, 아들들끼리 나누어 맡을 것이라는 응답을 하는 경향이 높았다. 고졸자와 전문대졸 이상의 사람들이 종교기관의 대행이나 제사제도가 없어질 것이라는 응답을 하는 경향이 높았다. 농촌가족의 경우 고학력층은, 전통적인 제례의 계승이나 장남 계승에 대해 부정적이며, 또한 종교기관의 제사 대행이나 제사제도가 없어질 것이라는 등의 제례의 대안적인 모습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소득수준별 가족/친족의례 관행과 태도

(1) 소득수준을 다섯 집단⁴⁾으로 나누어 집단별 차이를 검증하였다. **출산 의례**는 삼신에게 빌기($X^2=17.13^{**}$)와 돌잡이($X^2=15.42^{**}$)에서만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주로 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두 가지 의례를 많이 행하였다. 소득 수준차가 나타나는 **생일의례**는 선물 준비와 케익준비 항목이었다.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집단에서 생일떡을 더 많이 준비하였고($X^2=21.58^{***}$), 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인 80만원 이하 집단에서 선물을 준비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X^2=17.06^{**}$). 케익준비는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포하였지만 특히 81-100만원 집단과 201만원 이상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X^2=16.10^{**}$). 이를 볼 때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이 전통의례를 고수하고, 소득이 높은 집단이 서구적 의례 즉 의례의 사회화를 보다 적극 수용한다고 볼 수 있다.

(2) **남성의 성인기 시점**에 대해 소득수준별로 차이가 있었다($X^2=44.15^*$). '군대 제대'를 남성의 성인기 시점으로 보는 경향은 소득이 중간 수준 정도인 101-150만원 집단에서 가장 강했고, 소득이 가장 높은 201만원 이상 집단에서 군대 제대를 성인기로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낮았다. 소득이 높은 경우 결혼을 성인기 시점으로 보는 경향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고소득집단은 군제대나 혼인과 같은 사회제도보다는 개인적 성취를 중요시하는 데 연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성의 성인기 시점에 있어서도 소득수준별로 차이가 있었다($X^2=42.61^*$). 소득이 80만원 이하 집단에서 여성의 성인기 시점을 결혼으로 보는 경향이 가장 높았고, 소득이 201만원 이상인 집단에서 가장 낮았다. 결국 소득이 높은 집단은 군복무나 결혼과 같은 사회적 변화보다 학업, 취업 등의 개인적 성취를 더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3) **혼례**에서 소득수준별로 **혼례를 올린 장소**에 차이가 나타났다($X^2=38.38^{**}$). 소득이 낮은 집단이 집

4) 이 연구에서는 농촌가족의 소득 수준을 평균과 표준편차, 전반적인 소득의 분포도 등을 고려하여 5개의 집단으로 나누었는데 다음과 같다. 80만원 이하 집단, 81만원-100만원 집단, 101만원-150만원 집단, 151만원-200만원 집단, 201만원 이상 집단이다.

에서 혼례를 올린 비율이 높았고, 소득이 중간 수준인 경우에 예식장이나 회관, 종교기관을 이용한 경우가 많았다. 오늘날은 소득에 관계없이 집에서 혼례는 사라졌으므로, 이러한 차이는 높은 연령 집단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아서 나타난 결과라고 해석된다.

그리고 **결혼식에 수반된 의례**에서 소득수준별로 차이가 나는 의례의 종류는 청첩장($X^2=31.06^{***}$), 함잡이($X^2=18.72^{***}$), 피로연($X^2=17.69^{**}$), 신혼여행($X^2=20.03^{**}$)이었다. 함잡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의례에서는 소득수준이 중간 수준인 101-150만원인 집단이 가장 많이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이 보편적인 농촌 가족/친족의 의례문화를 주도하고 전승하는 집단이라고 보인다.

(4) **상례에서 남자 상주의 상복** 착용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검은색 양복의 경우 소득수준이 101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의 사람들이 많이 입는 것으로 나타났고($X^2=11.61^*$), 전통 상복인 삼베 상복($X^2=10.64^*$), 굴건($X^2=12.46^*$), 삼베 리본($X^2=10.24^*$), 요질($X^2=13.22^*$), 지팡이($X^2=10.41^*$), 행전($X^2=12.56^*$)은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80만원 이하 집단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전통을 고수하는 높은 연령층이 낮은 소득집단과 일치하는 데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여자 상주의 상복 착용에 있어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은 흰색 소복, 요질, 지팡이였다. 소득이 80만원 이하인 집단에서 흰색 소복($X^2=11.50^*$), 요질($X^2=23.86^{***}$), 지팡이($X^2=19.04^{***}$)를 사용하는 경향이 높았다. 이를 볼 때 소득이 낮은 집단이, 즉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집단이 여전히 전통적인 의례를 고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5) **제사의례**에서 소득수준 별로 제사형식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제사의 종류별 시행**을 보면, 차례와 기제사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없었고, 묘사에서만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X^2=13.02^*$). 소득수준이 중간 정도인 81만원에서 150만원 사이의 집단에서 묘사를 드리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소득수준이 낮거나(80만원

미만) 높은 경우(151만원 이상)에는 묘사를 드리는 비율이 낮다. 소득이 높은 경우는 서구화된 의례로 변화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소득이 낮은 경우는 의례 자체가 부담이 되기 때문일 것이라고 해석된다.

기제사의 봉사 대상 범위, 참가자의 범위, 남성의 기제사 때 입는 의복, 제기 마련 부분에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제사의 형식**에서 소득수준차가 유일하게 나타난 부분은 여성이 기제사 때 입는 의복이었다($X^2=31.33^*$). 소득수준이 비교적 낮은 100만원 이하 집단이 한복 정장을 입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고,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201만원 이상 집단에서 깨끗한 평상복을 입는 비율이 높았다. 소득이 높은 집단이 전통에서 벗어나 의례에 대한 용통이 높아지고, 소득이 낮은 집단이 더 보수적인 경향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다.

(6) **문중행사 참여정도**를 보면 **족보 발간** 부분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80만원 이하 집단에서 족보 발간에 참여하는 정도가 가장 높았다($X^2=17.62^{**}$). 이 역시 연령이 높은 낮은 소득 집단이 전통과 조상에 대해 애착을 높게 갖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 준다.

(7) 중요시하는 의례, 희망 묘제, 제사방식 등은 소득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제사 제도에 대한 전망**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소득수준이 낮은 80만원 이하 집단이 계속 장남이 말을 것이라든가, 아들들끼리 나누어 말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X^2=35.86^*$). 그러나 소득수준이 중간 정도인 101만원에서 150만원 집단에서는, '종교기관이 대행할 것'이라거나, 장차 '제사제도가 없어질 것'이라는 견해를 드러내어, 앞으로의 변화 방향을 예측하게 해주었다.

5) 종교별 가족/친족의례 관행과 태도

(1) 종교별로 차이가 나타난 출산의례는 삼칠일간 출입 삼가기($X^2=14.94^{**}$)와 삼신에게 빌기($X^2=31.02^{***}$) 두 가지였다. 민간 신앙적 의례는, 불교신자들이 기독교나 천주교 신자들에 비해 많이 행하였는데, 이는 종교 특성상 불교가 민간신앙과 결합된 부분이

많아 불교신자들이 이러한 출산의례를 많이 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생일의례와 성인기의례에서는 종교별 차이를 나타낸 의례가 없었다.

(2) 혼인의례는 종교에 따라 혼례를 올린 장소에서 차이가 나타났다($X^2=46.45^{***}$). 특히 신부집에서 혼례를 올린 경우는 불교신자가 가장 많았다. 종교에 따라 혼례의 수행에서 차이가 나는 의례는 합잡이($X^2=11.78^*$)와 폐백($X^2=13.31^*$) 두 가지였다. 둘 다 기독교나 천주교인보다 불교나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이 행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통혼례의 주요 절차인 합잡이와 폐백의 경우 서양 종교인 기독교나 천주교인은 덜 행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3) 상례를 보면, 남자의 상복에 있어서 종교차가 나타났다. 검은색 양복은 기독교신자들이 많이 입었고($X^2=31.65^{***}$), 삼베 상복($X^2=19.54^{**}$), 굴건($X^2=15.27^{**}$), 지팡이($X^2=25.94^{***}$), 행전($X^2=14.93^*$) 등의 전통 상복은 불교신자나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복장으로 나타났다. 여자 상복의 경우 전통적 상복 형식인 흰색 소복을 기독교와 천주교 신자들은 상대적으로 적게 착용했으며 불교와 종교가 없는 경우에 사용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X^2=15.36^{**}$). 지팡이도 역시 불교나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이 사용하였다($X^2=29.72^{***}$).

(4) 제사의례에서, 제사 형식은 종교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X^2=10.43^{***}$). 불교신자의 경우에 전통 유교식 제사를 실시하는 정도가 높았고,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전통 유교식이나 간소한 유교식 제사를 실시하는 정도가 높았다. 이에 비해 기독교신자나 천주교신자는 유교식 제사를 실시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낮았으며, 특히 기독교신자의 경우 기독교식 추도식을 드리거나, 제사를 안지내는 경우가 많았다. 우상승배나 조상승배를 부정하는 기독교에서는 유교식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보인다.

제사의 종류별 시행 정도를 보면, 종교별 차이는 제사의 모든 종류에서 분명하게 나타났다. 기독교, 천주교인들은 상대적으로 묘사에 대한 참여가 적었고, 불교신자와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참여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X^2=65.99^{***}$). 제사가 허용된 천

주교에서도 묘사 참여가 적었으며, 서구종교 신자들의 경우 전반적인 문중 행사 참여 정도가 낮았다. 묘사는 제사로서의 의미보다 문중행사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차례($X^2=124.84^{***}$)와 기제사($X^2=103.20^{***}$)의 경우도 기독교·천주교 신자들의 참여가 현저히 적었으며, 불교신자들과 종교가 없는 사람들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제사 형식 전반에서 종교차이가 나타났다. 우선 기제사 봉사 대상 범위에 있어서 불교신자의 경우 4대 봉사나 3대 봉사까지 하는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X^2=48.39^{**}$). 기제사 참가자의 범위에서도 불교 신자는 4촌 이내, 6촌 이내까지 참가하는 비율이 다른 종교에 비해 높았다($X^2=45.39^*$). 이에 비해 기독교나 천주교 신자들은 형제자매까지만 참가하는 비율이 높았다.

제사 복장은 남녀 모두 기독교인의 경우 평상복, 불교인의 경우 평상복과 양복 정장을, 종교가 없는 경우 평상복을 입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이 있었다(남성: $X^2=37.64^{**}$, 여성: $X^2=30.97^{**}$). 제기 마련에 있어서는, 기독교나 불교가 따로 제기를 마련해 놓고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X^2=36.56^*$). 의례의 신성성을 중요시하는 태도에서는 불교와 기독교가 일치하였다. 불교가 전래 종교 중 토착화된 역사가 가장 길고, 민간의 습속과도 상통되는 측면이 많아서 불교 신자일수록 다른 종교 신자들에 비해 제사를 중요한 의례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봉사범위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4대 봉사를 많이 행하고, 참가자의 범위도 4촌, 6촌까지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5) 문중행사 참여정도에서는 종친회, 묘사 참여에서만 종교별 차이가 나타났다. 기독교나 천주교 신자들은 종친회와 묘사에 상대적으로 적게 참여하였고, 불교나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참여하였다(종친회: $X^2=15.48^{**}$, 묘사: $X^2=30.02^{***}$). 대체적으로 모든 의례에서 불교신자와 종교가 없는 집단이 전통을 고수하고 보수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과 일치하고 있다.

(6) 중요시하는 의례는 종교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희망 묘제는 종교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

다($X^2=78.78^{***}$). 불교 신자나 종교가 없는 사람들의 경우 가족 묘지를 상대적으로 선호하였고, 기독교인들은 종교기관 묘지를 선호하였다. 그런데 천주교인은 가족묘지를 가장 선호하면서, 남골당 안치와 화장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다. 불교 신자나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남골당 안치나 화장 후 산에 뿌리는 형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태도였다.

제사방식에서도 종교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X^2=73.02^{***}$), 제사를 안지내겠다는 응답은 기독교 신자와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외손봉사·절·성당에서의 대행은 불교 신자들에게서 많이 나타났다. 제사제도에 대한 미래 전망에서도 종교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X^2=72.48^{***}$), 계속 장남이 맡거나 자녀들이 나누어 맡을 것이라는 견해에는 불교 신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응답하였고, 앞으로 제사제도가 없어질 것이라는 견해에는 기독교 신자와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응답하였다. 종교가 없는 집단은, 현재 유교식 제사를 지내는 정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안지내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은 어째서일까. 일종의 오래된 관행으로 지금 제사를 지내고는 있지만 이념적 내면화의 정도는 약하기 때문이 아닌가 해석된다. 대체로 서구종교를 가진 집단이 의례변화에 개방적이었고, 종교가 없는 집단은 미온적이고, 불교집단은 전통적인 태도를 고수하는 것이 의례 전반에서 일치하는 현상을 볼 때, 가족원간에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경우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된다.

4. 종합논의

먼저 출산의례를 보면, 가장 보편적으로 행해지는 것은 산모의 미역국 섭취로 나타났다. 전통사회와 마찬가지로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행해지는 이 전통은, 비록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빌던 '비손'의례는 소멸된 채 전승되고 있지만, 이는 곧 조상의 지혜의 전승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백일잔치와 돌잡이는 경제적으로 고소득·고학력 집단과 젊은 연령층이 널리 행하였다. 그리고 백일기도나 외갓집 나들이에 붉은 고추를 갖고 가는 기자(祈子)풍습과 삼

신할머니에게 빌던 민간 신앙적 행위는 농촌지역의 경우 고령층에서는 다수 행해졌으나, 젊은층에서는 단절되었다. 도시와 마찬가지로 농촌에서도 '케익'이 생일떡을 밀어내고 널리 행해졌고, '생일선물' 역시 과반수 가까이 행하였다. 그리고 남자에게 있어서는 '군대제대'와 '결혼'을, 여자에게 있어서는 '결혼'을 '어른'이 되는 전환점으로 여기는 경향이었다.

그리고 '신부집'에서 혼례를 올린 농촌의 높은 연령층의 경우는 젊은 층과 달리 예식장 등의 의례공간간의 사회화 영향을 덜받았다. 또한 도시가족과 달리 농촌가족의 경우는 전통적인 '함잡이'와 '폐백의례' 이외의 '야외촬영'같은 상업화된 혼인 절차는 늦게 그리고 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례에서는, 도시가족의 경우 서구적 상복인 검은색 양복이 남성 상복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이와 대조적으로 농촌에서는 전통적 형태의 삼베상복이 아직 보편적이었다. 여성들의 상복도 흰색 소복과 흰색 머리 리본이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 서구식의 상복으로 급변하고 있는 도시의 상례관행과 대조되었다.

제사형식은 전통 유교식이 여전히 보편적이어서, 차례와 기제사는 응답자의 80% 정도가 실시하였다. 묘사 역시 50%를 육박하여 아직까지 농촌지역에서는 문중을 중심으로 한 친족의례가 중요하게 실시되고 있었다. 또한 종친회(45.7%), 집안계 모임(53.7%)에 대한 참석도 활발하였다. 기제사의 봉사 범위도 전통적인 3, 4대 봉사가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이것은 계층이 높은 도시가족의 경우에 부모제사 위주로 변화하는 도시지역과는 대조되었다. 여전히 제사가 친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의례의 기회가 되고 있으며, 참가자의 범위도 도시지역보다 넓은 범위였다. 그리고 농촌가족의 경우도 결혼식을 가장 중요한 의례로 지각하고 있었고, 장례식, 기제사, 돌잔치, 환갑잔치를 차례대로 중요한 의례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가족/친족생활에서 의례가 지니는 높은 비중을 반영해 주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아들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과반수 가까운 사람들이 (48.1%) '제사를 안지내겠다'고 응답해서, 농촌가족

에서도 제사를 위해 아들을 입양하는 유교적 규범이 이미 약화된 현실임을 알 수 있었다. 제사에 대한 미래 전망에서도 '아들균분'의 제사보다 '아들, 딸들이 나누어' 지낼 것이라는 '아들·딸 공동역할'이 더 많이 나왔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도시보다 서서히 나타나는 변화이지만 서구적인 상복을 짧은 층에서 선호하기 시작한 점에서 보면, 농촌가족의 앞으로의 변화 방향은 시간의 차이일 뿐 도시지역과 다른 게 없을 것이라고 예측된다. 대체로 젊은층이 의례를 시대 변화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응하는 데 비해, 높은 연령층이 전통의례를 고수하는 것은 세대간의 차이를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한편 가족묘지와 공원묘지를 차례 대로 선호하였고, 납골당이나 화장에 대하여는 소극적인 것이, 세대 차이 없이 나타난 전반적인 농촌 주민의 태도였다. 그러나 제사제도에 대한 미래 전망에서는 '아들·딸 간에 제사를 나누어' 맡을 것이라는 견해가 10대의 전망인 데 반해, 50대와 60대는 제사를 계속 '장남이 맡을 것'을 기대하는 동시에 제사의 '종교기관 대행'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그리고 '제사제도가 없어질 것'이라는 전망은 20대에서 가장 높았다. 이러한 연령층 간의 차이를 보면, 앞으로 젊은 세대들이 의례의 주도권을 갖게 될 미래에 적지 않은 갈등과 변화가 예측된다. 양자제의 소멸과 기독교 신자의 증가 그리고 친족 및 사회관계망의 축소라는 변화 추세(옥선화 외, 2000:173)와 젊은층의 급진적인 태도에 비추어 보면 농촌지역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측된다.

그리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과 저소득 집단, 저학력 집단이 전통의례를 고수하고, 소득이 높은 집단, 고학력 집단, 젊은 연령층 집단이 서구적 의례 즉 의례의 사회화를 보다 적극 수용하였다. 그리고 소득 정도가 중간 수준인 101-150만원인 집단이 바로 농촌 가족/친족의 의례문화의 변화를 주도하는 집단으로 보였다. 이들 중간 정도의 소득수준

집단은, 제사에 대한 전망에서 역시 '종교기관이 대행할 것'이라거나, 장차 '제사제도가 없어질 것'이라는 견해를 드러내어, 앞으로의 변화 방향을 예측하게 해주었다. 오히려 소득이 높은 집단은 새로운 서구적 의례에 대해 허용적인 반면, 소득이 낮은 집단은 의례행동에서 보수적인 경향이었는데 이러한 특징 역시 도시가족의 경향과 일치하였다. 특히 농촌지역의 연령이 높은 집단과 낮은 소득 집단, 저학력 집단이 전통적인 의례를 고수하였고 조상을 섬기는 의례에 대해 높은 비중을 두었다. 이러한 태도는 예외적인 경우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들 농촌의 고연령층의 경우, 확고한 유교적 가치관이 엄숙한 신앙 수준이어서, 도시가족의 경우보다 더욱 일관된 경향성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주목되었다.

학력별로는 초졸집단이 전통을 고수하고, 고졸집단이 서구적 양식을 수용하면서도 의례 규범에 융통성 있게 적응하였다. 한편으로 친친회의 기능이 사회변화에 따라 다양해지면서 고학력자들도 참여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농촌가족의 고학력층은, 전통적인 '장남 계승' 제사에 대해 부정적이므로 '종교기관의 제사 대행'이나 '제사제도의 폐지' 등에 더 많은 변화를 추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가족/친족의례 모든 항목에서 성별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미 전반적인 농촌지역 연구결과에 보고한(옥선화 외, 2000:169) 바와 같이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에서 남녀가 유사한 인식을 공유하였고, 이혼에 대한 허용도에 대해서도 성별차이가 없어서 도시가족 연구결과(옥선화 외, 1998:166)와는 대조적이었다. 이것은 농촌지역에서 남녀가 함께 일하는 생활 경험의 일치가 태도와 행동의 일치로 연결된 것이 아닌가 해석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도시로 떠난 여성과 달리 농촌에 체류하는 여성들은 남성과의 공생을 지향하는 공동된 특징이 있는 것일까 하는 논의도 가능한데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연구⁵⁾가 필요하다

5)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농촌여성에 대한 연구는 주로 가족학, 여성학, 사회학분야에서 여성학적 관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들 연구에서는 남녀를 함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여성문제에 초점을 둔 만큼 여성만을 대상으로 삼고, 주로 도시가족과의 비교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남녀를 함께 연구대상으로 조사하여 도시의 남

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종교별 고찰을 하면, 불교신자들이 전통적인 출산의례를 많이 행하였다. 기독교와 천주교 신자들은 상례 시 전통적인 흰색 소복을 별로 착용하지 않았으며, 우상숭배를 부정하는 기독교에서는 유교식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현저하게 낮았다. 불교 신자는 봉사대상의 범위는 물론 제사참가자의 범위도 4촌, 6촌까지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 데 비해 기독교나 천주교 신자들은 형제자매까지만 참가하는 비율이 높았다. 불교가 전래 종교 중 토착화된 역사가 가장 길고, 민간의 습속과도 상통되는 측면이 많아서 대체적으로 모든 의례에서 불교신자가 전통을 고수하고, 종교가 없는 집단은 미온적이었으며, 서구종교를 가진 집단이 의례변화에 개방적이었다.

V. 결론 및 제언

농촌지역 의례 관행 실태 분석 결과, 가장 많이 소멸·단절된 것으로 밝혀진 의례는 우리나라 고유의 민간신앙적인 출산의례였다. 가정에서의 출산이 갖가지 출산의례를 의례문화의 한 요소로 발전시킨 것이 전통이었다면, 오늘날은 출산이 의료행위로 이미 옮겨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생명'을 맞이하던 신성한 출산의례는 소멸된 것이다. 그리고 그밖의 가족/친족의례가 서구화의 영향과 산업화에 따라 가정의례의 사회화가 농촌지역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물론 농촌지역에서는 혼상제례의 유교식 골격이 대체로 유지되고 있었는데, 그중 전통적인 관행을 상대적으로 많이 지속하고 있는 것이 상례이고, 그 다음이 제례라고 할 수 있으며, 가장 많이 사회화의 영향을 받아 상업주의화된 의례는 혼례였다.

그리고 관례는 용어조차 사라진 상태여서 일종의 '성인기 의례'의 아노미상태라고 표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관례는, 전통사회의 관례·계례가 소멸된 후 이러한 전통과 무관하게, 청년기가 장기화되는 산업사회 문제에 대응하는 시대배경에서 다시 출현하여 새로운 성년의례가 가족 밖의 또래집

단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하여 성인이 되는 시점을 언제로 보는가에 대한 태도만을 조사해 보았으나 이에 대한 응답 역시 편차가 드러나고 있었다.

먼저 출산의례에서 지속되는 산모의 미역국 섭취의 전통은, 과학적인 연구가 더욱 이의 전승을 뒷받침해 주는 의례라고 하겠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서 더욱 강화되는 의례는 백일잔치, 돌잡이, 환갑장치로 고소득·고학력 집단, 젊은 층이 주도하여 간다고 할 수 있다. '생일케익'이나 '생일선물'은 물론, '야외촬영'이나 '신혼여행'과 같은 각종 혼례에 부수되는 혼례절차도 이러한 범주에 속할 것이다. 이들이 주도하는 의례의 변화는 혼례잔치가 음식점 피로연으로 바뀌고 제사를 대행기관에 의뢰하는 '의례의 사회화'와 웨딩드레스 착용이나 서양식 검은색 양복 착용과 같은 '서구적 의례의 일반화'라고 할 수 있다. 야외촬영이나 신혼여행과 같은 서구적인 의례가 농촌지역까지 일반화된 것은 최근의 일이므로 이 의례는 젊은 층만이 행하였다. 무엇보다 상업주의화된 이들 절차가 농촌지역까지 보편화되는 데는 도시보다 긴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농촌가족의 앞으로의 변화 방향은 시간의 차이일 뿐 도시지역과 별로 다를 게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기제사는 특히 5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실시하고 있었고, 설과 추석의 차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민족의 대이동 역시 이들 50세 연령층이 주도해 왔다. 지금의 기성세대는 기혼자녀에 대한 강한 애착과 친족지향성을 특징으로 한다(육선화 외, 2000:173). 그런데 미래 전망에 드러난 각 연령층 간의 차이를 보면, 앞으로 젊은 세대들이 의례의 주도권을 갖게 될 미래에 적지 않은 갈등이 우려된다. 과연 지금의 젊은층들이 제사의 역할과 책임을 적극 수용할 것인지부터 의문이 제기된다. 양자제의 소멸과 기독교 신자의 증가 그리고 친족 및 사회관계망의 축소라는 변화 추세와 더불어 젊은층의 급진적인 태도에 비추어 보면 적지 않은 변화가 예측된다고 하겠다.

녀와 같은 차원에서 비교 논의하는 전체적인 비교 연구로 접근해야 이러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

또 한편으로 20대는 결혼식을, 60대는 환갑잔치를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상황에서 의례행사를 한 가족/친족 안에서 치루어갈 때, 서로를 배려하고 조화로운 대처를 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특히 각종 영리적인 의례대행업체가 각종 서비스를 판매촉진하고자 할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건강한 가족 규범과 조화로운 의사소통을 통한 의례 수행을 꾀하도록 도와주는「가족/친족의례 교육프로그램」이 가족주기별로 평생교육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농촌지역의 가족/친족의례에서 특기할 또 하나의 사항은, 전반적으로 도시가족에 비해 변인별 편차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그만큼 농촌은 서로 다른 이질적인 집단의 갈등이 도시보다는 적다고 볼 수 있다. 가족묘지와 공원묘지를 차례대로 선호하였고, 납골당이나 화장에 대한 소극적인 반응 역시 전반적인 농촌 주민의 공유된 태도였다. 그러나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과 저소득·저학력 집단이 전통의례를 고수하고, 고소득·고학력, 젊은 연령층 집단이 서구적 의례 즉 의례의 사회화를 보다 적극 수용하였다. 그리하여 오히려 소득이 높은 집단은 전통에서 벗어나 의례에 대한 융통성이 높은 반면, 소득이 낮은 집단은 의례행동에서 보수적인 경향이였다. 학력별로도 일관된 태도를 나타냈다. 초졸집단이 전통을 고수하고 고졸집단이 서구적 양식을 수용하면서도 의례 규범에 융통성 있게 적용하였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연구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가족/친족의례 모든 항목에서 성별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과연 우리나라의 농촌지역 현실이 이미 남녀간의 성별갈등을 넘어선 수준일까? 그렇지 못하다면 성별 갈등보다 더한 것이 도·농간의 지역갈등인 것일까. 그래서 농촌의 부부들은 강한 유대감을 통하여 성별갈등을 극복하고자 한 것일까. 이에 대하여는 보다 정교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며, 농촌연구에서 이러한 주제는 보다 본격적으로 해결해 가야 할 과제라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농촌지역의 가족/친족의례를 고찰한 결과 그 어떤 다른 변인보다 종교별로 유의미한 차

이가 드러났다. 서구종교를 가진 집단이 전반적으로 의례변화에 개방적이어서 의례변화를 주도해 나간다면, 불교와 종교가 없는 집단은 전통적인 태도를 고수하는 것이 의례 전반에서 일치하는 현상이었다. 이러한 차이가 가까운 이웃에서 아니면 같은 가족/친족 내에서 나타났을 때 과연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해 가는 것이 바람직할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 방안도 이제는 가족 밖에서 전문가의 지혜로 제공되어야 가족/친족 내 갈등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급격한 한국사회의 산업화, 서구화 과정의 산물이 가족 규범의 동요와 혼란을 초래한 만큼 이것이 단적으로 압축되어 나타나는 의례행동에서 서로 존중할 수 있고, 합의해 나갈 수 있는 의사소통 과정이 다양한 경로로 사회교육 차원에서 제공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이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가족/친족의 해체와 재구성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한 연구의 일부로 가정의례를 집중적으로 실태 분석하고 논의하였다. 부부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의 어려움은 가중되는 여성화·노령화 되고 있는 농촌가족, 그러나 성차보다는 연령차이가 현저한 농촌, 그리고 종교에 따라 편차가 드러나는 가족/친족의례 현실, 그리고 부모와 기혼자녀가 밀접한 관계에 의존하면서 조금씩 그 표현에서는 서구가족의 생활양식을 도입하고 있는 농촌 현실이 의례 변화과정에서 포착되었다. 이러한 농촌사회가 보여주는 다양한 편차와 모순과 갈등들이 더 큰 갈등으로 진전되지 않도록, 이러한 현실을 공론화하는 장을 곳곳에 만들고, 동시에 이에 대응하는 각종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구체적인 접근이 후속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경기도 화성군·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1989). 화성군의 역사와 민속·역사·민속학술종합조사보고서.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학술총서 4.
 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 편(1995). 한국의 산촌민속 1-치악산편, 한국기층문화총서 2. 교문사.
 (1995). 한국의 산촌민속

- II-노적산편, 한국기층문화총서 3. 교문사.
- 금산문화원(1992). **용화리의 역사와 민속**-충남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사례연구-. 용화리 역사민속지 1집.
- 김일철·김필동·문옥표·송정기·한도현·한상복·榊崎 京一(카키자키 교오이치)(1998). **종족마을의 전통과 변화**. 서울: 백산서당.
- 김택규(1988). 한국 농경세시의 이원성. **한국문화인류학** 20, 107-134.
- 김혜숙(1999). **제주도 가족과 권당**. 제주연구총서 4. 제주대학교 출판부.
- 로저 자넬리·임돈희 공저, 김성철 역(2000). **조상의례와 한국사회**. 일조각.
- 문옥표(1998). 가정의례 : 혼상제례를 중심으로. 김일철·김필동·문옥표·송정기·한도현·한상복·榊崎 京一(카키자키 교오이치)(1998). **종족마을의 전통과 변화**. 서울: 백산서당. 206-232.
- 문옥표(1998). 예서에 나타난 유교식 관혼상제례의 의미분석. 서울대학교 인류학연구회 편. **한국인류학의 성과와 전망**. 한국인류학총서 13. 집문당.
- 문옥표·김일철·김태현·이문웅·정명채(1993). **근교농촌의 해체과정-경기도 파주군 J부락의 사례 연구**-. 연구논총 93-1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박부진(2000). 전통적 생활문화의 전승과 변화-세시풍속을 중심으로-. 서울문화사학회 **서울문화연구** 3, 11-33.
- 박영길(1995). 근대화와 전통의식의 변화.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민속연구** 5, 29-45.
- 박혜인(1990). 가족관계에 나타난 한국인의 혈연의식-벽진면의 혼상제례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2, 103-134.
- 석대권(1986). 기제사의 규범과 관행의 비교 연구.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연구회. 인류학연구** 4, 34-76.
- 성병희(1995). 조령송배의 한일비교.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민속연구** 5, 1-12.
- 송정기(1998). **조상송배와 신앙생활**. 김일철·김필동·문옥표·송정기·한도현·한상복·榊崎 京一(카키자키 교오이치)(1998). **종족마을의 전통과 변화**. 서울: 백산서당. 233-255.
- 안병렬(1994). 기독교와 조상제사 수용.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민속연구** 4, 3-33.
- 영남대학교 박물관(1991). **경산의 전통문화와 마을생활양식-인류학적 조사**-. 학술조사보고 11.
-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편(1990). **양좌동 연구**.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연구총서 1. 영남대학교 출판부.
- 옥선화·김주희·박혜인·신화용·한경혜·고선주(1998). 가족/친족 구조의 해체와 재구성 I : 서울시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11), 157-182.
- 옥선화·김주희·박혜인·신화용·한경혜·고선주(2000). 가족/친족 구조의 해체와 재구성 II : 농촌지역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8(10), 157-179.
- 용인시·용인문화원·용인시사편찬위원회·한국역사민속학회(2000). **용인의 마을의례**. 용인시사총서 5. 학술출판사.
- 이남식(1990). 금소의 친족과 친족조직. **안동대학 안동문화연구소. 안동문화** 11, 301-339.
- 이향란(1993). 한국의 조상송배와 유교제사. **우리사회연구회 사회학 학술논문집** 1, 179-198.
- 임재해(1993). 세시풍속의 변화와 공휴일 정책의 문제. **비교민속학** 10, 21-50.
- 임재해(1990). 한 동성마을의 민속과 문화적 전통의 양상. **안동대학 안동문화연구소. 안동문화** 11, 125-191.
- 임재해(1989). 단오에서 추석으로-안동지역 세시풍속의 지속성과 변화. **한국문화인류학** 21, 341-366.
- 장철수(1993). 평생의례와 정책. **비교민속학** 10, 51-62.
- 장홍군 방촌마을지편찬위원회(1994). **전통문화 마을방촌**. 향지사.
- 전경수(1977). 진도 하사미의 의례생활:조상송배의례의 생태적 기능을 중심으로. **인류학논집** 3,

35-74.

정승모(1979). 의례에서 나타나는 의미의 상징적 표현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인류학연구회. 인류학논집 5, 49-89.

조강희(1989). 문중조직의 연속과 변화-상주지역 한문중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21,

401-418.

최길성(1988). 한국 조상숭배 연구의 회고와 전망. 한국문화인류학 20, 153-166.

Janelli, R.L. & Dawnhee Y.J.(1982). *Ancestor worship and Korea society*, Stanford University Press.